2010 새해에는

정 순 호 광주지방노동청장

"노사화합·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광주·전남지역 노조가 과격하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실제 지난해 노사분규·근로손실일수 등 수치를 보면 타지역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일반화돼 강성 이미지를 띠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난 18일 청장실에서 만난 정순호 광주지방노동청장은 "노조의 강성 이미지 탓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많다"며 "강성 이미지 개선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노

노조 강성 이미지에 기업유치 애로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할것

사분규 건수는 11건(광주 5건, 전남 6건)에 불과했다"며 "전국의 120건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기업과 업종, 지역단위별 노사화합 선언 및 행사를 284회나 추진했다. 그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적극 펼쳐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올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에 올려 구인-구직을 연계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턴제 2천명, 뉴스타트 프로젝트 1천명, 직장체험프로그램 2천명 등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실업급여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경우는 '잡매니저(취업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1대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초·광역단체별 일자리 수를 조사해 일자리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171억원 규모를 투자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해 우리 지역 산업재해율은 0.73%로 전국 평균 0.63%보다 높은 실정이다"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재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

구직-구인 연계 취업 지원

근로빈곤층 1대1 맞춤서비스

혔다. 또 "노조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이 새로 도입됐다"며 "매뉴얼 보급, 노동현장 교육·홍보 등으로 노사관계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정 청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나왔고, 지난 1986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리과장, 노동부장관 비서관,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경기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산업 둘러 보는 최경환 장관 19일 광주를 방문한 최경환(가운데) 지식경제부 장관이 북구 첨단동 한국광기술원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개발(R&D)특구 조기 지정을 약속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범띠, 로또 횡재하려면 월·금요일에 사라

올해 호랑이띠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관공서 인근에서 로또를 구입하면 행운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1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웹진에 따르면 올해 1월 로또 띠별 운세 행운지수는 호랑이띠의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 동남 방향의 관공서 인근으로 가서 오전 11시~오후 1시 또는 오후 9시~11시에 18, 20, 36, 37, 41, 43의 숫자가 담긴 로또를 구입하면 당첨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행운의 숫자는

18, 20, 36, 37, 41, 43

쥐띠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동, 서북 방향의 잡화점 또는 마켓에서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5시~7시에 18, 24, 28, 34, 39, 45 숫자를 고르면 행운을 잡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소띠는 월요일과 일요일에 남, 서 방향, 오전 7시~9시 또는 오후 1시~2시, 숫자는 12, 17, 34, 26, 41, 44였다. 토끼띠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북, 남서 방향, 오후 3시~5시, 숫자는 6, 17, 20, 31, 39, 41이며 용띠는 화요일과 일요일에 동, 서북 방향의 지구대 및 초소 인근, 오전 6시~8시 또는 오후 9시~11시, 숫자는 3, 27, 29, 31, 39, 41이었다.

원숭이띠는 수요일과 일요일, 서북, 동남 방향, 오전 8시~11시, 숫자는 10, 15, 21, 27, 30, 41이며 닭띠는 월요일과 목요일, 북, 서남 방향, 오후 3시~5시, 숫자는 6, 18, 20, 29, 33, 40이었다. /연합뉴스

■ 새얼굴

"中企 도와 지역경제 발전 이끌것"

이 선 권 기업은행 호남본부장

"IBK기업은행과 인연을 맺은 수많은 지역 중소기업이 호남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이선권(55)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은 19일 "지역 산업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올해 경영 방침과 관련, "금융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개인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선 개인 고객에 대한 대출과 예금유치 활동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상고를 졸업한 뒤 지난 1975년 기업은행에 입사, 광주지점, 목포지점 과장, 광주동지점 차장, 하남지점장, 서초남지점장 등을 역임한 영업통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전남 中企에 설자금 150억 지원

韓銀 25일부터… 업체별 최고 3억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9일 설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50억원(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3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치 향락 업종 및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오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중 은행과 지방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대출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한국은행의 금리는 1.25%로 업체별 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자금수요가 커지는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